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권병학(요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 시기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루카 2,30)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0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10/25 기준) 적립금액(\$76,263) ※ 주소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년에 1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주일 10:00, 대철실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도들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사랑하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느 성모 기도회	매월 1,3주 (토) 10:00
율뜨레아	매월 1주(목) 성시간 후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10/25 기준) 적립금액(\$76,263)
※ 주소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 ▶ 2/ 2(일) 주님 봉헌 축일(본당 11:00, 공소 17:30)
※ 성수 축성 및 축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 ▶ 2/ 4(화) 연중 4주간 화요일 (본당 20:00)
- ▶ 2/ 6(목) 성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본당 19:00)
- ▶ 2/ 9(일) 연중 제 5주일 미사(본당 11:00, 공소 17:30)

◎ 2025년 초, 제병 및 제주 봉헌

올해 사용할 초, 제병 및 제주 봉헌은 오늘까지 전례부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현금 영수증 배부

2024년 현금 영수증은 복도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분과장 하태성 베드로

◎ 구역장 월례 회의

오늘 미사 후 구역장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 교구 특별 현금

오늘 신학생 양성 기금 현금이 있습니다.

단체 소식

- ◎ 뽀레시디움 창단 사도들의 모후 Pr. 첫 회합 화요일 18:30
- ◎ 은빛 모임 다음 달로 연기되었습니다.
- ◎ 본당 율뜨레아 2/6(목) 미사 후 친교실
- ◎ 꾸리아 회합 2/9(일) 미사 후 하상실

◎ 율뜨레아 쇄신피정

- 기간: 2025년 2/ 28(금) 오후 5시 – 3/ 2(일) 오후 3시
- St. Francis Centre, 208501 Highway 9, Caledon
- 피정 주제: 동반자
- 참가비: \$300
- 준비물: 길잡이, 매일미사책, 묵주, 세면도구, 실내화, 방한화 및 외투 장갑
- 마감 및 문의 접수: 2/16(일) 간사 박혜영 수산나
- ※ 신청서는 게시판에 있습니다.

공소 소식

◎ 이번 주 식사는 최창훈 마티아 형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구역모임 (소식)

- 1 구역 2/22(토) 14:00 이인선 젬마 자매
- 2 구역 2/15(토) 11:00 최경애 글라라 자매
- 3 구역 2/14(토) 12:00 친교실
- 4 구역 2/ 9(일) 14:00 친교실
- 5 구역 2/16(일) 13:30 친교실
- 6 구역 미정 친교실
- 7 구역 2/15(토) 17:30 이지훈 다니엘 형제

친교 식사

- | | | |
|-----------------------------------|-------------|-------------|
| 2/ 2: 3 구역 (얼큰 소고기 콩나물국, \$5/\$3) | 2/ 16: 5 구역 | 2/ 23: 6 구역 |
|-----------------------------------|-------------|-------------|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31 명)			
주일현금	\$1290	교무금	\$0
감사현금	\$0	성전건립	\$70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주일학교 이지훈 다니엘

◎ 2월 축일자 명단(7명)

- 2/ 4 요안나(임성신)
- 2/ 5 아가다(주소연, 이금자)
- 2/10 스콜라스티카(강영희)
- 2/16 아가페(오예선)
- 2/18 요한 프라 안젤리코(정이안)
- 2/26 이사벨라(이지민)

2025 희년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퍼져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임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전례봉사자

날짜	설교	복사	독서자	봉헌자
2/2	권희진 요안나	이준서 사도요한 이지민 이사벨라 최아현 베로니카 이준규 안드레아	1 독서: 박혜영 수산나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김성수 베드로 이은영 힐데가르트
2/9	이은영 힐데가르트	유세진 라파엘, 최다희 보나	1 독서: 이인선 쟈마 2 독서: 임연신 비아	전례부 I 박규혜 카타리나
2/16	박규혜 카타리나	이준우 바오로, 최다혜 플로라	1 독서: 이은영 힐데가르트 2 독서: 강지원 요안나	이인선 쟈마 임연신 비아

참된 봉헌은 자기비움입니다.

장훈철 바오로 신부
전하 성당 주임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로써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헌된 것을 기념하는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지금껏 많은 신자분과 면담을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받은 질문이 ‘주님께서는 언제쯤 제 기도를 들어 주실 것 같습니까?’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다음이 ‘주님께서는 제 기도만 들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면도 있는 합니다. 특히 삶의 역경을 겪고 있거나 병고의 아픔이 닥쳐왔을 때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겨지기에 그 마음을 이해해 주려 하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신양인으로서 주님께 대한 좀 더 굳건한 믿음과 확고한 의탁이 부족하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함에 못내 아쉬울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청원기도나 예물 봉헌을 하는 것이 자기만족이나 자기보상 혹은 세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 혹은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바치고 신의 마음에 들어 그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청원과 봉헌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봉헌을 통하여 인간이 하느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변화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청원기도나 봉헌은 나의 능력으로 하느님을 움직여 원의를 얻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겠다는 결손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헌에 따른 원의의 실현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은 이를 확실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시메온 예언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믿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성 어린 봉헌의 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봉헌이 손해 보는 것 같이 느껴지고 바보처럼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봉헌은 자기만족과 성취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희생이며 자기를 내어줌으로 이미 주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리는 바움임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대에 쓰일 초를 봉헌하는 날입니다. 정성된 봉헌을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모두 자신을 녹이며 세상의 빛으로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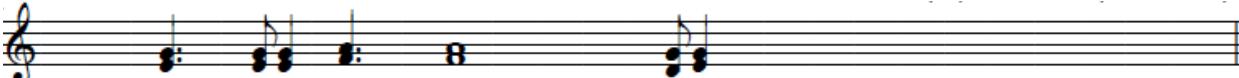
St. Peter Yu Catholic Church /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주님 봉헌 축일

(2025. 2. 2.)

제 1 독서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1~4
화답송 시편 24(23), 7,8,9,10(◎ 10 ㄴㄷ)



후렴.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제 2 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2,14~18

복음 환호송 루카 2,32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알렐루야.

복 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2~40